

테마파크·미술관... ‘예술의 섬’이 부른다

우도 자리잡은 ‘훈데르트바서파크’ 소설속 비밀의 정원 온 듯 몽환적 건축물에 자연의 생명력 불어넣어 서귀포 ‘포도뮤지엄’ 전시도 이색 혐오와 편견 풀어낸 ‘너와...’ 열려

봄날의 제주는 볼 것이 참 많다. 유채 꽃을 비롯한 봄꽃들이 꽃망울을 터트리 고, 겨우내 매설계 옷속을 파고들던 바 닷바람에는 살짝 온기가 배어든다. 화사한 풍광을 즐기는 것이 이맘때 제 주여행의 ‘국룰’. 그런데 조금 더 섬을 찬찬히 살펴보면 그런 것에 더해 육지서 접하기 힘든 예술적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다. 이번에 제주의 동쪽과 서쪽을 오가며 새롭게 주목할만한 아트 여행 명소 두 곳을 다녀왔다.

●우도 ‘훈데르트바서파크’

제주 성산항에서 뱃길로 불과 10여분 안팎이면 다다르는 섬 우도. 최근 우도 에는 훈데르트바서파크(HUNDERTW ASSER PARK)라고 조금 낯선 이름의 공간이 생겼다. 오스트리아 출신 화가이 자 건축가, 환경운동가의 이름을 딴 아 트 테마파크다. 배를 타고 우도 천진항 에 도착해 남쪽 우도봉 기슭 방향으로 5분 정도 걸어가면 나타난다.

소설 속 ‘비밀의 정원’ 같은 오묘조밀 한 길을 따라 들어가다 보면 특이한 형 태의 건물들이 눈에 가득 들어온다. 물 겹치듯 구불구불 이어진 벽면과 각진 곳 없이 둥근 형태로 저마다 모양이 다른 기둥들. 건물의 색깔도 무척 강렬하다.

훈데르트바서파크는 ‘자연에는 직선 이 없다’는 작가의 예술철학을 담고 있 는 공간이다. 구스타프 클림트, 에곤 실



훈데르트바서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는 뮤지엄 내부. 곡선의 건물 외양. 비슷한 색채나 모양이 없이 저마다 개성적인 기둥, 옥상에는 자연친화적인 정원을 갖추고 있는 뮤지엄 외부, 포도뮤지엄에서 전시 중인 권용주 작가의 작품들(위로부터 시계방향).



제주 |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레와 함께 오스트리아의 3대 화가로 불 리는 훈데르트바서는 “인간은 자연에 들른 손님”이라는 이념 아래 건축물에 자연의 생명력을 불어넣었다.

훈데르트바서파크 역시 작가의 생전 건축 작품들 콘셉트와 디테일들을 파크 안에 구현했다. 건물을 지을 때 베어지 는 수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생하던 파크 곳곳에 옮겨 심으며 자연과의 조화 를 추구했다. 건축물도 같은 형태가 하

나도 없다. 파크 내 건축물에 있는 총 78개의 기둥과 131개의 유리창이 각각 다른 형태와 색깔을 지니고 있다.

파크는 훈데르트바서의 일생과 작품 을 관람하고 체험하는 상설기념관 ‘훈데 르트바서뮤지엄’, 신진작가의 작품을 소 개하는 ‘우도 갤러리’, 시그니처 디저트 와 차를 마시면서 우도 절경을 즐기는 ‘카페 톨카이’와 ‘훈데르트원즈’, 기념품 샵, 그리고 성산일출봉 전망의 지중해풍 숙박시설 ‘훈데르트힐스’로 이루어져 있

다. 훈데르트힐스에 속한 캐주얼 다이닝 레스토랑 ‘말차이트’에서는 제주 식재료 를 통해 만든 현무암수니첼, 톨칸이리조 또, 뿔소라갈치속젓파스타 등의 이색적 인 메뉴도 맛볼 수 있다.

●서귀포 ‘포도뮤지엄’

제주도 동쪽인 우도에서 서쪽으로 섬 을 횡단하다시피 한참을 가다 보면 서귀 포 포도뮤지엄이 나온다. 이곳에서는 현 재 아포브(APoV, Another Point of Vi ew) 전시 ‘너와 내가 만든 세상’을 진행 하고 있다.

‘너와 내가 만든 세상’은 인류사에 많 은 비극과 갈등을 초래한 혐오와 편견을 예술가의 시각을 통해 경험하고 공감의 의미를 나누는 시뮬레이션 전시이다. 한 국의 강애란 권용주 성립 이용백 최수 진 진기종, 일본의 쿠와쿠보 료타, 중국 의 장사오강 등 8명의 작가가 참여했다. 강렬한 사회적 메시지의 전시가 새로 운 것은 아니지만, ‘너와 내가 만든 세 상’은 그런 메시지를 애써 ‘강요’하거나 ‘선동’하지 않는 점이 매력이다. 재기발 람하고, 예술적 흥취가 넘치는 작품들은 저마다의 화법으로 가짜 뉴스, 오해와 고정관념이 나온 편견, 그리고 그것을 묵인하고 방치하면서 자아낸 혐오의 현 장을 말한다.

감상하는 재미가 남다른 작품을 하나 씩 보다 보면 어느새 ‘내 안에는 과연 저 런 모습이 없나’라며 스스로를 돌아보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뮤지엄 2층에서 는 노동과 빈곤, 전쟁과 죽음, 모성을 소 재로 작품활동을 한 독일작가 케테 콜비 츠 ‘아가, 봄이 왔다’도 같이 열리고 있 다. 역시 마음의 여운이 깊은 작품들이 많아 함께 돌아보면 좋다.

oldfield@donga.com

에버랜드, 젊은 아티스트 손당은 ‘튤립파워가든’ 개장

100종 130만 송이 봄꽃·콘텐츠 풍성 MZ세대 인기 작가 이슬로 등과 협업 튤립축제 30돌 기념 ‘NFT’ 내달 공개

에버랜드는 18일 튤립파워가든을 개장 한다.

에버랜드는 1992년 튤립을 테마로 한 봄 꽃 축제를 국내 최초로 시작했다. 올해는 축제 30년의 역량을 바탕으로 100종, 130만 송이의 봄꽃과 젊은 아티스트들과 의 다양한 협업으로 제작한 트렌디한 콘텐

츠를 마련했다.

우선 1만㎡의 포시즌즈가든이 MZ세대 에게 인기가 많은 화화 작가 이슬로와 컬 래브레이션한 튤립파워가든으로 변신한 다. 파스텔 컬러와 부드러운 그림체가 특 징인 이슬로 작가가 창작한 아기 호랑이, 판다, 레니, 라라 등 다양한 캐릭터 일러스트들을 봄꽃들과 함께 만나 볼 수 있다. 에 버랜드 튤립 캐릭터인 톨리로 이번에 이슬 로 작가 버전의 ‘톨리 히어로즈’로 새롭게 태어났다.

길이 24m, 높이 11m의 LED 스크린에 서는 매일 ‘플라워 미디어 가든’을 진행한

다. 추미림, 최성록, 박재성 등 미디어 아티스트들이 참여해 봄, 튤립 등을 주제로 한 영상 3편을 공개한다. 매시 정각에는 네덜란드의 튤립필드 영상도 약 10분간 상영 한다.

특히 에버랜드는 튤립축제 30주년을 기 념해 이슬로, 추미림 등 아티스트들과 협 업한 디지털 아트 NFT(대체불가토큰)를 제작해 4월 초 선보일 예정이다.

봄꽃과 함께 관람하기 좋은 감상 공연도 진행한다. ‘왓츠 인 로열 팰리스’를 아티데 크 무대에서 18일부터 매일 공연하고, CJ 문화재단의 튜입 뮤지션이 출연하는 ‘스프



100여종, 130만여송이의 봄꽃이 핀 에버랜드 튤립 파워가든. 사진제공 | 삼성물산 리조트부문

링 업’ 공연도 26일부터 5월 28일까지 매 주 토요일 저녁, 같은 무대에서 열린다.

한편, 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대화 테 마정원인 에버랜드 하늘정원길은 25일 오 픈할 예정이다.

김재범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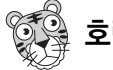
아웃도어 브랜드 K2가 아웃도어 활동은 물론 나들이, 여행 등 폭넓게 활용 가능한 봄 바람막이 ‘브리즈 아노락 자켓’(사진)을 출시했다. 부드러운 터치감의 경량 나일론 소재를 적용해 가볍고 착용감이 우수하다. 방풍 기능은 물론 우수한 스트레치 기능으로 신축성이 뛰어나 편안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 준다. 부피가 적어 기온이 높은 한낮에는 벗어 간편하게 휴대하기도 좋다.

밑단에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는 스트링을 적용해 원하는 핏을 연출할 수 있으며, 아노락 특유의 얇면 켤거루 포켓 주머니를 적용해 티셔츠와 수납성을 높였다. 감각적인 3단 배색 조합으로 디자인 포인트를 더했고, 심플한 후드 일체형 디자인으로 레깅스나 조거팬츠 등과 함께 매치하면 스포티하면서 캐주얼한 분위기의 아웃도 어룩을 연출할 수 있다. 16만 9000원.

편집 | 한민규 기자 slopspe@donga.com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3월 18일 (금) 음력: 2월 16일 문의: (02) 812-1201, 도원학당

 쥐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소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호랑이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토끼	행운색: 검정 길방: 북	 용	행운색: 적색 길방: 남	 뱀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성급함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면서 주위의 자문이나 조언을 귀담아 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가능한 한 타인의 일에는 간섭이나 개입을 않는 편이 좋으며, 건강에 많은 신경을 기울여 안정을 도모하기 바란다. 상가에서의 음식을 조심하라.	냉정 상태를 심각하게 몰고 가면 위험 위치에서의 이탈, 또는 다른 파경에까지 이르게 될 수 있으니 마음을 어떻게 결정하는가가 중요하다. 모든 생각과 행동은 자신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점 명심하기 바란다. 성실성과 근면성이 부족하다.	의욕이 충만하며 생각해보면 일을 시작하는 시기이다. 현 상황에서 확장이나 변화를 시도하기 위하여 과감한 행동이 따라야 하며 너무 주위를 의식할 필요는 없다. 용기를 가져라. 최후까지 노력하면 달성된다. 지나치게 설치면 실수한다.	사람들을 많이 사귀게 되며 경쟁도 심할 때이므로 남보다 빨리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협력을 구해야 한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한다면 많은 사람의 협력을 얻어 대사업을 완성시킨다. 쥐띠와 상의하라.	강인한 정신력으로 돌진할 수 있는 힘을 간절히 필요로 한다. 능력이나 용기를 잃고 좌절할 경우 많은 실망을 안겨줄 수 있으니 희망을 잃지 말라. 한 발 앞선 행동도 기대에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도움을 받으려면 말피에게 부탁하라.	사방이 위협으로 막혔기 때문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물러서지도 못하는 상태이다. 이럴 때는 되도록 무리를 하지 말고 쉬운 길을 골라서 식견 있는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재물손실이나 가정 불화가 있을 수 있다.						
 말	행운색: 청색 길방: 동	 양	행운색: 적색 길방: 남	 원숭이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닭	행운색: 검정 길방: 북	 개	행운색: 적색 길방: 남	 돼지	행운색: 흰색 길방: 서
말은바 임무에 충실하되 경계방동을 삼가라.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계획을 실천에 옮겨라. 구직자는 원하는 곳에 이력서를 넣으면 취업이 가능하다. 오늘은 장성일이다. 지나치게 권위적이며 자신위주가 된다. 아내가 힘들어한다.	귀인의 도움으로 병역과 재물이 따르며 문서적인 문제도 자신의 소신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성간에도 지금까지의 지연상대가 급변하여 원하는 상태로 돌입하며 좋은 인연을 맺게 될 것이다. 매사 꼼꼼히 살펴라.	혁신의 기운이 강한 날이다. 좋은 기회를 얻는다. 그러나 서둘러서는 마라. 과일이 익듯이 무리익은 다음에야 상대가 응해 온다. 거레에 있어서도 큰 건수가 들어온다. 이쪽은 강력히 밀고 나가도 괜찮다. 차량 운행 중 신호위반에 걸릴 수도 있다.	음과 양의 기운이 서로 통하는 날이다. 마음의 교류가 없이는 사회생활이 성립되지 않는다. 운세는 좋은 때이며 직감에 호소하여 민첩하게 행동하면 효과를 본다. 마음을 바르고 곧게 가지면 이롭다. 오늘은 외부, 교통, 무역업 등 인연이 좋다.	최운의 극을 나타내는 기운이다. 한부로 인간미를 쓰지 말고 조용히 겨울철이 끝날 때를 기다려야 한다. 겨울이 오면 불이 멀지 않은 법이다. 사소한 일 때문에 송사가 생길 수가 있으니 조심하라. 재능이 빛을 보는 날이다.	이 보 전진을 위해 일부 후퇴할 시기이다. 따라서 급진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은 좋지 않으므로 모든 일을 순리대로 풀어나가야 될 것이며 남의 뒤를 쫓아간다는 식으로 생활한다면 별 무리가 없었다. 관재, 송사, 사고를 조심하라.						

레저

스포츠동아 2022년 3월 18일 금요일 15



양무승 서울시관광협회 회장(왼쪽)과 이즈청 주한타이베이대표부 부대표.

서울시관광협회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 이즈청 타이베이대표부 부대표에 감사패

양무승 서울시관광협회 회장은 한국과 대만의 민간교류와 상호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이임하는 이즈청 주한타이베이대표부 부대표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즈청 부대표는 5년간 주한타이베이대표부에 재임하면서 한국과 대만의 관광 및 문화교류에 힘써왔다. 서울빛초롱축제, 서울국제도서전 등에 참가해 왔으며, 국내 여행사와의 다양한 협력을 통해 양측의 관광 활성화를 이끌어냈다. 실제로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9년에 우리나라 국민 240만 명이 대만을 관광하는 등 관광교류가 크게 증가했다.

롯데면세점, 2년째 ‘WE면세점’ 인증 획득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이 서울본부세관으로부터 ‘WE면세점’ 인증을 획득했다. 지난해 롯데면세점 명동본점에 이어 2년 연속 인증 획득이다. ‘WE면세점’ 인증은 면세업체와 중소·중견업체가 자발적으로 상생협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수출성장을 견인하고자 서울세관이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했다. 인증 업체에는 인증패 수여, 행정제재 시 1년 이내 1회 감경,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선정·경신 시 세관 협력 반영, 대내포상 우선 추천 등의 혜택을 준다.

K2, 기능성 높은 ‘브리즈 아노락 자켓’ 출시



아웃도어 브랜드 K2가 아웃도어 활동은 물론 나들이, 여행 등 폭넓게 활용 가능한 봄 바람막이 ‘브리즈 아노락 자켓’(사진)을 출시했다. 부드러운 터치감의 경량 나일론 소재를 적용해 가볍고 착용감이 우수하다. 방풍 기능은 물론 우수한 스트레치 기능으로 신축성이 뛰어나 편안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 준다. 부피가 적어 기온이 높은 한낮

에는 벗어 간편하게 휴대하기도 좋다. 밑단에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는 스트링을 적용해 원하는 핏을 연출할 수 있으며, 아노락 특유의 얇면 켤거루 포켓 주머니를 적용해 티셔츠와 수납성을 높였다. 감각적인 3단 배색 조합으로 디자인 포인트를 더했고, 심플한 후드 일체형 디자인으로 레깅스나 조거팬츠 등과 함께 매치하면 스포티하면서 캐주얼한 분위기의 아웃도 어룩을 연출할 수 있다. 16만 9000원.

편집 | 한민규 기자 slopspe@donga.com

오늘의 날씨				18일(금)			
서울	60/30	인천	60/30	춘천	70/30		
	5 11		5 11		4 10		
강릉	80/80	대전	70/30	전주	70/30		
	3 6		6 10		8 13		
광주	60/30	대구	60/30	부산	70/30		
	8 14		6 8		8 10		
창원	70/60	제주	100/60	지역	강수 확률 (오전~오후)		
	7 10		11 12	날씨	최저 최고온도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785호

발행인·편집인 이인철

편집국장 연재호

사업총괄 김성수

광고국장 이송욱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정연

산업경제부장 양형호

사진부장 고종철

인쇄 동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일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보·투고 02-361-1616

sol@donga.com